

이란, 하르그 섬의 천연가스 집하 시설 입찰

이란 하르그 섬의 천연가스 집하 및 회수 시설 제3차 패키지 사업에 대해 입찰이 진행되고 있는데, 응찰 희망 회사들의 요청에 따라 5월 중순으로 예정되었던 입찰기일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가 8억~10억 달러에 이르는 이 프로젝트는 천연가스 집하장 등 육상시설, 천연가스 액화물(NGL) 회수 플랜트 2기, 가스관, 저장시설 및 수출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하르그 천연가스 집하장은 이미 입찰이 끝난 1, 2차 패키지 사업 등을 포함한 전체 사업이 완료되면 일일 6억 입방피트의 처리능력을 보유하게 되며 생산물은 이란의 국영석유화학회사 (National Petrochemical Company: NPC)가 하르그 섬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의 원료로 쓰이게 된다. 한편 1차 및 2차 패키지 사업은 해상시설 건설 프로젝트로서 금융조달이 확정되지 않아 아직 낙찰자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 하르그 프로젝트의 수요자는 이란 해상석유회사(Iranian Offshore Oil Company)로서 모회사인 이란 석유회사(National Iranian Oil Company: NIOC)가 자회사를 대신하여 프로젝트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이란 석유회사는 이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위해 국제 상업은행들과 차입을 협의중이며 출자자도 모색 중이다. 출자에는 일본 투자자들이 참여 의사를 표명하였는데 미쓰이는 이란 석유회사와 올해 초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미쓰비시물산과 도멘도 흥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란의 국영석유화학회사는 이 프로젝트의 생산물을 사용하는 에틸렌 분해시설을 하르그 섬의 석유화학단지에서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시설규모는 당초에 30만 톤으로 계획되었으나 연간 50만~60만 톤으로 계획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 공급을 위한 입찰에는 독일의 린데(Linde), 일본의 도요 엔지니어링(Toyo Engineering Corporation), 프랑스의 테크니프-코플렉시프(Technip-Coflexip)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르그 섬의 석유화학단지에는 이 외에도 30만 톤의 고밀도 폴리에틸렌 시설과 두 번째의 66만 톤짜리 메탄올 플랜트도 건설될 예정이다.

원유 외 품목의 수출 증진에 노력하고 있는 이란은 2001/02년(2001.3.21 ~ 2002.3.20)에 석유화학제품을 전년도보다 29% 증가한 401만 톤을 수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최대 수입국은 92만 톤을 수입한 일본이고 중국과 우리나라가 그 뒤를 이었다. 이란 국영석유화학회사의 국내외 마케팅 자회사인 이란 석유화학상업회사(Iran Petrochemical Commercial Company)는 신규 생산시설들이 가동을 개시함에 따라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이 2002/03년에는 420만 톤으로, 그리고 2005년이면 무려 15백만 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다.